어린이와 어린이 문학에 대한 역사적 질문

—근대 어린이 문학의 형성과 현재적 과제—

임성규*

＜차 례＞

Ⅰ. 머리말 : 어린이의 본성에 대한 질문
Ⅱ. 최남선과 어린이 문학의 기원을 둘러싼 의문
Ⅲ. 방정환과 동심 천사주의의 재인식
Ⅳ. '일하는 아이들' 이후 어린이 문학의 과제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Ⅰ. 머리말 : 어린이의 본성에 대한 질문

근래에 들어와 어린이 문학은 융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자본주의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똑똑이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1]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출판문화에서 어린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과 사회적 풍조가 맞물린 어린이 문학의 성장과 도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난날 어린이 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나치게 미약했던 것과 큰 대조를 보이며, 지금의 이러한 호황을 한편으론 근심스런 눈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실제로 어린

* 대구교육대학교 강사, rocker9502@hanmail.net

1) 홍성태, 「지식사회와 어린이—'똑똑이' 이데올로기와 학력주의의 내면화」, 『문화과학』 21호, 문화과학사, 2000 봄, 53~70쪽 참조.

이의 실제 출생률은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어린이 문학을 단순히 어린이 교육의 수단 정도로 간주하는 편협한 관점도 시정해야 할 대상이다. 어린이 문학이 일정한 계몽성을 담보함에는 틀림이 없지만 어린이 문학도 독자적인 미적 자질을 갖춘 '문학'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로 어린이 문학의 기본적 토대와 철학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의미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 것이다.[2)]

이러한 의미에서 어린이와 어린이기에 대한 질문은 어린이 문학에 대한 질문과 홀로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연관을 형성하고 있다. 도대체 어린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서 어린이 문학을 논의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어린이란 누구인가"를 묻는 행위는 어린이 문학의 철학적 지반을 단단히 하고자 하는 실천적 기획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와 어린이 문학은 완연히 근대의 산물이란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그 안에 내장하고 있다.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가 근대의 방법적 시선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신선한 통찰은 어느덧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3)] 훗설의 현상학에 기반을 둔 '현상학적 환원'에

---

2) 근대 어린이 문학에 대한 탐구는 어린이의 본성에 대한 질문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이는 곧 아동문학 교육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또한, 근대는 현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의식을 추동하는 결절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와 어린이 문학에 대한 탐구를 국어국문학으로 간주하는 것은 편협한 관점일 수 있다. 초등 국어교육학 중에서도 문학교육은 아동문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물론 각 시기별, 작가별 사상과 철학을 탐구하는 작업들은 향후 개별적인 정치한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3) 가라타니 고진은 어린이란 실체적 개념이 아니라 '방법적 개념'임을 분명히 한다. 어린이기의 개념은 근대에 들어와 성인들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으로 새롭게 구성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통찰이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이란 질문과 얽혀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대해 정치한 탐구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의 논의로 조은숙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근대 아동문학과 창작 동화 그리고 아동문학의 탄생이란 물음에 대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柄谷行人, 박유하 역, 「아동의 발견」,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2005, 151~179쪽 참조.
조은숙, 「'아동의 발견'이라는 화두와 아동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형」,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7, 9~24쪽 참조.

의해 그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아동'의 기의를 전도의 시선에 의해 새롭게 인식한 시각의 전환은 근대 어린이 문학의 형성이란 질문과 맞물리면서 여전히 곱씹어 볼만한 의미들을 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서양 아날 학파 사학자인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ès)의 어린이기에 대한 지적[4]과 맞물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어린이는 근대의 방법적 시선에 의해서야 비로소 '발견' 혹은 '탄생'된 것이며, 그 이전까지의 어린이는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어른의 축소판'으로 간주되었을 뿐 '귀여워하기(mignotage)'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과 동등한 노동과 의무를 감당해야 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므로 근대에 들어와 새롭게 호명된 어린이관을 염두에 둘 때, 어린이 문학이 그 기본 바탕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어린이 문학에 대한 연관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한 평론가의 지적처럼 어린이 문학의 특수성은 수신자, 곧 독자가 어린이라는 점이 표나게 두드러지는 장르이며 이러한 기초적 인식이 선결될 때 개별 장르로서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다.[5] 또한, 어린이기와 어린이 문학에 대해 작가나 비평가 혹은 연구자들이 지니고 있는 근원적 열등의식을 탈피하고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대상이자 장르로서 어린이 문학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일반인들이 어린이와 어린이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들을 독자적인 실체로 인정하는 온당한 관점에 설 때에야 제대로 된 어린이 문학과 어린이 문화를 열어 나갈 수 있다. 그것은 어린이 문학의 성립이 단순한 어른의 축소판이 아닌 독자적인 요구와 관심을 가진 존재로서 개별

---

4) Philippe Ariès., L'enfant et la vie familiale sous l'ancien régime. 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 새물결, 2003. 영역본(Trans Robert Baldick, 『Centuries of Childhood-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New York : Vantage Books, 1962)을 보면 "어린이기는 빨리 지나가거나(passed quickly) 빨리 잊혀지는(quickly forgotten)시기"(34쪽)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라타니 고진의 '발견'에 대비되는 '탄생'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어린이기에 대한 현재적 인식은 기존에 없던 것이 한 순간에 탄생한 것이기보다는 점진적인 이행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발견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견 타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저 2장의 표제가 'The Discovery of Childhood'로 되어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5) 김상욱, 「어린이문학의 장르론적 특성」, 『어린이문학의 재발견』, 창비, 2006, 85쪽.

적 어린이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달성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6]

이러한 맥락에 터할 때 지금까지 어린이 문학과 관련지어 어린이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 시도들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 성과도 자못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어린이를 둘러싼 문제가 단순히 어린이 문학만의 협소한 문제 거리가 아니라 어린이를 둘러싼 현상들을 중심에 두고 연구하는 '아동학과'가 존재한다는 예에서 생각할 수 있듯이 간(間)학문적 성격의 것임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종합적인 논의의 바탕 위에서 어린이의 본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어린이 문학과의 관련성 그리고 어린이와 어린이 문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천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된 중요한 연구 성과를 에둘러 볼 때 어린이 문학과의 직접적 연결이란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 연구의 분포와 축적이 그리 넓고 깊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 문학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최근의 연구의 경우 구전설화에 등장하는 '서사적 어린이'의 모습을 통해 어린이의 문화적 의미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거나 근대 잡지에 나타난 어린이의 모습을 살피려는 연구[7]가 그나마 산견될 뿐이다. 특히 어린이 문학의 입장에서 어린이의 존재론적 의미를 모색한 연구가 특정 연구자들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보다 다양한 시각과 배경 지식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이 문제를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린이 문학의 형성 초기에 어린이기의 성립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어린이문학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어린이 문학에서 어린이의 개념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들을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적인 어린이 문학의 과제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어린이기와 어린이 문학의 형성이란 화두와 연결되며, 근대 어린이 문학의 발아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해당한다. 또한, 현실주의 아동문학의 정점을 지나 다원화된 방향으로 뻗

---

6) John Rowe Townsend., Written for Children. 강무홍 역, 『어린이책의 역사1』, 시공주니어, 1996, 13쪽.

7) 최기숙, 『어린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 책세상, 2001 ; 최기숙, 『어린이, 넌 누구니?』, 보림, 2006.

어 나가는 현재의 어린이 문학 현상을 반성적으로 성찰해보려는 시도이다.

Ⅱ. 최남선과 어린이 문학의 기원을 둘러싼 의문

우리의 경우 근대적 어린이의 발견은 근대 어린이 문학의 기원이란 문제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즉, 근대 어린이 문학의 진정한 출발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의문이 아직도 상존해 있는 것이 어린이 문학 연구의 숙제이자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것은 어린이와 어린이 문학을 독자적인 개념태로 수립하기 위한 기획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어린이 문학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탐구는 간과할 수 없는 숙제이다. 특히 최근의 어린이 문학 연구사의 경향을 보면 근대 어린이 문학과 청소년문학 그리고 창작 동화 및 어린이 문학론에 대한 시원적 지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연이어 수행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린이기와 어린이 문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천착은 어린이 문학의 기원과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한꺼번에 돌출되고 있는 현 시기 어린이 문학 연구의 지형과 무관할 수 없다.[8]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어린이 문학 연구의 획기적 진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그만큼 이 문제가 어린이 문학의 핵심적 본질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증명한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육당(六堂) 최남선의 『소년』지 창간(1908)을 시점으로 한 1910

8)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것이 박사학위 논문의 문제 거리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며, 아직 확실한 결론이나 연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진행형의 형태로 계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노정하고 있다. 주요 연구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권복연, 「근대 아동문학 형성 과정 연구－1910~1920년대 초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1999 ; 김화선,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2002 ; 박숙경, 「한국 근대 창작동화 형성과정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99 ; 심명숙, 「한국 근대 아동문학론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2002 ; 최배은, 「한국 근대 청소년소설의 형성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2004 ;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5.

년대와 소파(小波) 방정환의 『어린이』지(1923)로 대변되는 1920년대를 아동문학의 시원적 계기로 보는 선택의 문제가 그것이다. 실제로 그나마 공인되고 있는 것은 방정환의 어린이 문학 운동이 펼쳐진 1920년대 초반을 '본격적'인 어린이 문학의 출발로 보는 데에는 그다지 큰 이견이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본격적'이라는 수식어가 지닌 애매함은 그대로 남는다. 그것은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대상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다른 각도에서 현 시기의 연구들을 정치하게 들여다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즉, 거기에 배태된 모순적 문제는 그러한 최남선 혹은 방정환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어느 한 쪽으로의 선택이나 경사(傾斜)가 잘못하면 어린이 문학의 역사에서 어느 한쪽의 배제를 가져옴으로써 온전한 근대 어린이 문학의 모습을 조명하는 데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어린이 문학의 기원을 열어젖힌 주역이 최남선이냐 방정환이냐 하는 물음은 시각에 따라 '구분'이나 '선택'의 문제이기 보다 '차이' 혹은 '상황'의 문제일 수 있으며, 어린이 문학의 기원으로 굳이 선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어린이 문학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신문관에서 1910년대에 발간한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 『새별』의 경우 명백히 어린이들을 독자 대상으로 감당하고 있음으로 해서 어린이를 위한 문예지로서의 기능과 소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세기 초기의 10년 동안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경우는 제3세계로 대변되는 약소국들을 지배하는 천민자본주의로 인해 번영하였고 이러한 풍토 위에서 민주주의 사상의 구가와 함께 인간해방과 어린이 해방이 강조되었던 것은 그 역사적 맥락을 살펴 볼 때 당연한 귀결이었다.[9]

---

9)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의 재편성・강화・재분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국력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나온 교육적 대응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인간상을 찾는 자유주의적 신교육"이었다. 하지만, 이는 제국주의의 지배 논리에 침윤되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했던 국내와는 사정이 다른 것이었다.
梅根悟., 김정환・심성보 역, 『세계교육사』, 풀빛, 1990, 506~507쪽 참조.
長尾十三二 外., 송일지 역, 『新敎育運動史』, 한마당, 1985, 98~99쪽 참조.

즉, 그것은 타자의 지배를 통한 동일자의 번영이며, 그러한 토대 위에서 성인과 변별되는 어린이라는 또 다른 타자의 발견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 대상이었던 제 3세계권과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른 것이다. 실제로 타율적 근대를 경험한 우리의 경우 어린이기와 어린이 문학의 성립이란 문제는 근대화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민족 계몽과 분리될 수 없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과 국내의 역사 문화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곧, 민족과 국가를 억압하던 서구 중심의 지배 논리에서 벗어나 자생적인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일반 대중과 젊은 층의 계몽이 필요함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소년』지(1908)로 대변되는 최남선의 잡지 간행을 통한 민족 계몽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 이리하야 雜誌『少年』은 月刊으로 二十餘卷이 세상에 나왔으나, 그것은 文學 또는 學術雜誌도 아니었으며, 바로 民族運動 靑年運動의 一念아래 이루어졌던 것이다. 더구나 平安道 黃海道 같은 데선 『少年』이 敎科書의 役割까지 하여 외우는 사람도 있었으며, 오늘날 李允榮氏 같은 분도 그당시 愛讀者였었다. 어떻든『少年』은 그 當時 큰 存在였고, 唯一의 民族的 雜誌 였던 것이다.
> (崔南善, 「韓國文壇의 草創期를 말함」, 『現代文學』 창간호, 1955. 1, 38쪽)

이렇듯 최남선의 언급을 포괄한 종합적인 각도에서 볼 때 『소년』지는 "민족운동 청년운동의 일념"하에 민족 계몽 운동을 수행하였다. 잡지를 간행한 최남선이나 이광수 그리고 간행에 일정 부분 관여한 홍명희의 나이가 약관이 채 안되었다는 점에서 젊은 층이 중심이 된 신문예 운동의 기치를 올렸던 것이다. 곧, "우리 大韓으로 하야곰 少年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랴 하면 能히 이責任을 堪當하도록 그를 敎導하여라."[10]라는 표어를 힘차게 휘두르면서 출항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잡지 간행에 참여한 이로 '이인 문단시대'를 주도한 춘원 이광수가 합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유일한 어린이 문학사인 이재철의 『한국 현대아동문

10) 최남선, 「권두언」, 『소년』 제1년 제1호, 신문관, 1908. 11. 1.

학사』(일지사, 1978)에서는 1908년을 어린이 문학의 태동으로 보고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활동을 첫 머리에 기술하고 있다.[11] 이것은 다소 어린이 문학의 개념역을 포괄적인 관점으로 예단하는 척도에 입각한 것으로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를 함께 묶어 계몽적인 아동문화 운동과 연결시키는 관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어린이 문학사 기술이 통시적인 연결 지점을 시기적으로 보다 이른 시기까지 확충하게 되고, 어린이기에 다소라도 근접하는 작품들과 논설들을 어린이 문학의 권역 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와 대조되는 결점이나 억지스런 부분도 적지 않다. 비근한 예로 최남선이 간행한 잡지에 수록된 이광수의 소년 주인공 소설의 경우 지금까지 어린이 문학 부문에서도 소년소설의 초기작으로 큰 비판 없이 인정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어린 희생』(1910), 『소년의 비애』(1917), 『어린 벗에게』(1917)에 등장하는 소년들의 경우 그 연령 대에서부터 10대 후반의 소년들이란 점에서 실제 어린이기에 포함시키기에는 거리가 있을 뿐더러 주인공으로 보아야 할 소년이 중도에 죽음을 당하거나 사촌 누이와의 연정으로 서사 구도 전체를 시종하는 등 통과의례나 정신적 모험을 체험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는 바람직스런 곡선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주의 정신에 기반을 둔 대 사회인식도 미약하다는 점에서 원론적 의미의 소년소설로 취급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은 여전한 제약으로 남는다. 어린이 문학은 아무리 인간사회의 모든 대상과 문제를 작품의 소재와 주제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한계와 '주는 문학'으로서의 배려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12] 그것은 이 소설 작품들의 수록 지면이 아동 문예지로 보기 어려운 『소년』지와 『청춘』지란 점에서도 석연치 않은 측면을 내포한다.

실제로 독자 사회학의 견지에서 볼 때 근대 어린이 독자의 성립이 본

11)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36~63쪽.
12) 이오덕, 「아동도서·아동문학·아동교육」, 『어린이를 지키는 문학』, 백산서당, 1984, 147~148쪽.

격적인 어린이 문학을 출항시킨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된다.[13] 계몽주의와 민족 해방이란 표어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음은 시대적 동인(動因)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최남선이 바라본 신대한의 '소년'을 과연 어린이의 의미망으로 볼 수 있는가하는 데에 의문의 근원적 처소가 가로 놓여 있다. 이재철의 입론을 반박하는 입장들이 돌출된 것도 어린이 문학 연구가 이제 내실을 다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음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사례이다. 이재철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서 소장파 아동문학 연구자인 원종찬은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아동문학의 진정한 출발은 어린이 해방의 독자적인 표어를 내건 방정환에서 찾고, 최남선의 활동은 그 전사(前史)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듯싶다."[14]라는 반대 의견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입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염희경 등과 같은 후속 연구자들의 계속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문제는 '소년'이란 개념이 '노년'과의 대비를 통해 그 의미를 건사해 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소년의 의미는 어린이 문학 연구자 원종찬의 지적처럼 지금의 신세대란 의미로 수렴된다. 그런데 문제는 신세대로 표상되는 '소년'의 의미는 단순히 청년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데에 주목을 요한다. 최남선이 표명한 '소년'은 오늘날의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개념인 것이다. 그러므로 최남선의 문학 활동을 단순히 어린이 문학의 전사(前史)로 국한시키는 것은 일면 온당하지 못하다. 오히려 진정한 어린이 문학의 기원은 『소년』지의 시원성(始原性)을 발판으로 하여 1910년대 중후반에 신문관에서 발행한 세 종의 아동 문예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1920년대 방정환의 독자적 어린이와 어린이 문학의 발견이 갑작스럽게 발생된 돌출적 결과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1910년대 어린이와 어린이를 위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어

13)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215~217쪽 참조.

14) 원종찬, 「한국 현대아동문학사의 쟁점」,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146쪽 ; 염희경, 「한국 근대아동문단 형성의 '제도'」, 『동화와번역』 11집, 건국대 동화와 번역연구소, 2006, 197~230쪽.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다가 1920년대 초반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표면화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지금까지 사장되어 빛을 보지 못한 1910년대 아동 문예지에 대한 재조명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연구의 온축(蘊蓄)을 통해 어린이의 발견과 어린이 문학의 기원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풀려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행방은 방정환의 어린이 문학운동에서 유래된 '동심 천사주의(童心 天使主義)'로 이어진다.

Ⅲ. 방정환과 동심 천사주의의 재인식

어린이와 어린이 문학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상 텍스트와 거기에 반영된 아동문학관이 독자인 아동을 고려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놓여 있다. 최남선의 '소년' 개념이 문제가 되는 것도 그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정환이 새롭게 의미부여한 '어린이'의 경우는 그 개념의 명징함을 통해 '본격적'이라는 수사에 어울리는 근대 어린이 문학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와 가족 집단에 대한 가치가 근대적 규율의 사회화와 학습이란 이름으로 재개념화 국면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를 천사에 비유하는 순진무구함(innocence)이란 개념이 첫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15] 그러한 천진 혹은 순진무구란 개념은 일본의 경우에도 낭만주의에 기반을 둔 『빨간 새(赤い鳥)』를 통해 초기 아동문학의 국면을 지배하게 된다.[16] 그리고 그것은 주지하다시피 지금 어린이 문학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동심주의', 혹은 '동심 천사주의'란

15) 조형근, 「'어린이기'의 탄생과 근대적 가족 모델의 탄생」,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새길, 1997, 133~164쪽 ; 김혜경, 「일제하 자녀양육과 어린이기의 형성 : 1920~30년대 가족담론을 중심으로」,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222~276쪽 참조

16) 河原和枝, The Making of Modern View of Children in Japan. 양미화 역, 『어린이관의 근대－<빨간 새>와 동심의 이상』, 소명출판, 2007, 141~152쪽.

개념의 유래가 된다. 그러한 '천사적 어린이관'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글이 어린이를 동학에서 얘기하는 한울님의 경지로 끌어올린 아래의 의지 표명이다.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라"는 동학의 아동 존중 사상이 녹아 들어간 것이 방정환이 바라본 근대 어린이 상이었던 것이다. 즉, 그 이전까지 독자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던 어린이의 개념을 정당한 자리로 격상시킨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 오오 어린이는 지금 내 무릅 앞헤서 잠잔다. 더할 수 없는 참됨(眞)과 더할 수 없는 착함과 더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우고 그 우에 또 게다가 또 위대한 창조의 힘까지 갖추어가즌 어린 한우님이 편안하게도 고요한잠을 잔다. 엽헤서 보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생각이 다른 번루한 것에 및츨틈을 주지 안코 고결하게 고결하게 순화(純化)식혀 준다. 사랑홉고도 보드러운 위엄을 가지고 곱게곱게 순화식혀준다.
>
> 나는 지금 셩당(聖堂)에 드러간 이상의 경건(敬虔)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니저버리고, 사랑스런 한우님－위엄뿐만의 무서운 한우님이 아니고－의 자는 얼골에 례배하고잇다. －중략－
>
> 어린이와 마조 안줄때-적어도 그 잠깐 동안은-모르는 중에 마음의 세례를 밧고 평상시에 가저보지 못하는 미소(微笑)를 씌운, 부드러운 조흔 얼골을 갓게 된다. 잠간동안일망정 그 동안온 순화된다. 깨끗해진다. 엇더케던지 우리는 고 동안 순화되는동안을 자조 가지게 되고 싶다.
>
> (小波, 「어린이 讚美」, 『신여성』 2권 6호, 1924. 6, 67~68쪽 ; 방운용, 『小波全集』, 博文書館, 1940, 5~7쪽)

실제로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으로만 알려졌지 그가 어린이 문화 운동가이자 어린이 문학가이며, 동요 작가, 출판인, 동화 구연가 등 다재다능한 능력을 발휘하여 어린이 교육과 어린이 문학 및 문화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은 최근에 와서야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17] 개인적인 이력에서 볼 때 동학의 뒤를 이은 천도교의 제3대 교주인 손병희의 셋째 사위가 되어 어릴 적 가난이란 멍에에서 벗어나면서 방정환은 동학의 아동 존중 사상에 기반을 두고 어린이 문화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17) 염희경, 「소파 방정환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2007, 58~115쪽 참조.

어린이를 재래의 봉건적 억압과 일제로부터의 억압이란 중첩된 압력에서 해방시키고자 전심전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러므로 재래의 윤리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사회적 시설의 설치를 주장한 '소년운동의 기초조건'[18]은 그의 이러한 자전적 내력과 사상적 기저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것은 곧 앞에서 살펴본 철학적 명제대로 한국에서의 아동의 '발견'에 다름 아니었으며, 방정환에 와서야 비로소 어린이 문학은 논란의 여지없이 진정한 의미의 출발을 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보호하며 교육해야 할 대상으로 어린이를 호명함으로써 어린이 계몽과 교육을 위해 어린이 문학이 제 기능을 다하여야 함을 주장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곧 어린이를 위한 문학 장르로서의 동화와 그 동화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주장이 그것이다.

> 童話는 그 少年-兒童의 精神生活의 重要한 一部面이고, 最緊한 食物이다. 文化的으로 進化한 現代에 잇서서는 우리네의 人間的 敎養의 一要素로 藝術이 絶對的으로 必要한 것과 가티 現代의 兒童에게는 그 人間的 生活의 要素로 童話가 要求되는 것이다. ―중략―
>
> 童話가 兒童에게 주는 利益은 決코 二三에 止하는 것이 아니니 다만 敎育

18) "본 소년운동회는 <어린이날>의 첫 기념일이 되는 五월 一일인 오늘에 있어 고요히 생각하고, 굳이 결심한 끝에 감히 아래와 같은 세 조건의 표방을 소리쳐 전하며 이에 대한 兄弟天下의 심심한 주의와 공명과 또는 협동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라.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禮遇를 許하게 하라.
1.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一四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無償 또는 有償의 노동을 廢하게 하라.
1.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癸亥 五월 一일 소년운동협회"(정인섭, 『색동회 어린이 運動史』, 학원사, 1975, 53쪽) 소파 방정환을 도와 색동회 모임을 주도했던 동화 작가 마해송의 회고에 의하면 색동회는 "民族의 次代는 어린 사람들이다. 어린 사람들이 잘 되고 못 되는 데에 民族이 興하고 亡하는 것이 달려 있으니 그들을 잘 指導하기 위해서 硏究도 하고 일도 해보자는 모임"(마해송, 「나의 <색동會>時代」, 『新天地』, 1954, 449쪽)으로 술회되고 있다. 색동회는 명실 공히 근대 어린이 문학의 성립과 정착을 주도한 최초의 어린이 문학 연구 모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上으로 有效한 點으로만 본대도 童話에 依하야 그 情意의 啓發을 速히 하고 理智의 判斷을 明敏히 할 뿐外라 許多한 道德的 要素에 依하야 德性을 길러서 他에 對한 同情心, 義俠心을 豊富케 하고 또는 種種의 超自然 超人類的 要素를 包含한 童話에 依하야 宗敎的 信仰의 基礎까지 지어주는 等 實로 그 效力이 偉大한 것이다.
>
> (小波, 「새로 開拓되는 <童話>에 關하야—特히 少年以外의 一般큰이에게」, 『개벽』, 1923. 1, 19쪽)

어린이 문학의 요건을 완결 짓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주요 독자로 상정하고 창작된 문학작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린이 문학의 출항과 함께 어린이 문학의 장르 개념을 고려한 소파 방정환의 의식적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어린이 문학은 독자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하고 아이들의 눈과 마음으로 마주친 경험을 담고 있어야 하며, 아이들이 읽고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 표명인 것이다.[19] 그리하여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고래 동화의 발굴을 거론한 것은 민족 문화를 고려한 건강한 주체 의식의 표명이며 창작 동화가 나아갈 길을 '고래동화(古來童話)'의 정당한 계승에서 찾은 것은 전통 문화와의 연결망 확보란 점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소파 아동문학론의 특장(特長)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소파 방정환의 동심 지향성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천사주의적인 어린이관이 문제이다. 실제로 어린이라고 해서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들도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어린이들도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리얼리즘에 기반을 둔 어린이 문학 작품들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이 배태하고 있는 문제들을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순수라는 관념으로 무장한 왜곡된 세계 인식과 어린이관은 방정환의 동심주의를 굴절시켜 특수한 의도가 개입된 목적론적인 동기에 의해 편의적으로 '동심'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동심 천사주의'라는 해묵은 위조 담론을 만들어 내기에 이른다.

---

19) 김상욱, 「아이들의 눈, 어른의 상상력」, 『숲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묻다』, 창작과비평사, 2002, 29쪽.

그러나 그것은 방정환의 어린이관과 어린이 문학의 본질을 잘못 이해, 해석해서 생긴 오해의 산물이다. 실제로 방정환은 계급주의 아동문학 작가 송영의 작품을『어린이』지에 수록하여 유치장 신세를 진적도 있었으며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소설「깨어가는 길」(『개벽』, 1921. 4)을 발표하는 등에서 확인되듯이 사회주의 사상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작가로서의 포부』(동아일보, 1922. 1. 6)와 같은 논설에서 "항상 쉬지 않고 새로 창조되는 신생은 민중과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하여 그 지향을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현실을 등진 채 이상적인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좌익 아동문학 평론가였던 송완순의 논지[20]에서도 그 오류가 드러나듯이 동심 천사주의가 방정환에게서 유래했다는 것은 방정환의 낭만주의와 현실주의의 실상을 오독한 결과이다.

Ⅳ. '일하는 아이들' 이후 어린이 문학의 과제

이렇듯 근대 어린이기와 어린이 문학의 기원에 천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 문학의 철학적 지반을 형성함과 동시에 향후 어린이 문학의 과제 수행을 위한 기본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와 어린이기에 대한 개념들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21]이라

20) "方氏도 現實을 全然 등진 것은 아니었다. 當時의 朝鮮民族, 그 中에도 特히 어린이의 大多數의 處地가 얼마나 不幸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氏는 어른의 問題보다도 어린이의 問題에 優先的으로 着手한 것이었다. 그러나 方氏의 民族主義의 現實認識은 多分히 로맨티크한 센티멘탈리즘에 依據하였디. 그리하여 그것은 現實의 어린이의 慘憺醜陋한 生活實狀에 대하여 느낀 바의 民族的이자 人道的인 義憤을 積極的 鬪爭에로 發展시키지를 못하고 消極的 無抵抗에 머물게 하였으며 이것이 更進一步하여 自己가 悲觀視하는 否定的 現實에서 어린이를 隔離시키어 觀念上으로나마 或種의 幸福感을 주려는 意慾으로 말미암아 天使主義를 結果한 것이었다."
宋完淳,「兒童文學의 天使主義－過去의 史的一面에 關한 備忘草」,『아동문화』1집, 동지사아동원, 1948, 28쪽.

는 점에서 어린이 문학을 건사해야 할 성인들의 책무는 실로 막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지적한 동심 천사주의적 태도는 민족 현실에 뿌리를 둔 민족문학으로서의 어린이 문학과는 상치되는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린이 문학의 이론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이오덕의 지적대로 이른바 현실의 진정성에 기반을 둔 '시 정신'과는 다른 자리에 놓이는 것이며, 낙천성과 언어 놀이만으로 시종하는 '유희정신'으로 함몰되었던 것이다. 즉, 그러한 유희적이고 어린이 문학의 수준을 무사안일하게 취급한 일군의 경향들이 어린이 문학사의 또 다른 굴절된 흐름을 이어 왔던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설 때 어린이 문학 연구의 지형에서 최남선을 낮추고 방정환을 높이는 이유는 최남선의 경우 민족 현실과의 조응과 대응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어린이와 어린이 문학에 대한 관심을 생애 내내 지속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근·현대 어린이 문학의 통시적 흐름을 에둘러 볼 때 방정환의 어린이 문학 운동이 가진 힘이 가히 어린이 문학사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역사적 전망에서 방정환의 활동과 맞닿을 수 있는 것은 어린이 문학 평론을 하나의 독자적 장르로 자리매김한 1970, 80년대의 이오덕에 와서야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곧 '탐미적 독선세계'를 비판하는 현실주의 어린이 문학 정신이며, 어린이를 지키는 문학 운동을 수행해 나간 그 실천성에 가로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각 아래에서 이오덕은 방정환의 현실주의적 동력과 함께 1930년대 이후 방정환의 아동 존중 정신을 계승하면서 어린이 문학 전 장르에 걸쳐 고독한 투쟁을 벌인 이원수의 현실주의적 산문 정신을 이어 받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기반 위에서 '일하는 아

21) 어린이 문학이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어린이'는 사회적 구성의 산물로서 여기에는 사회와 국가 그리고 민족이 요구하는 어린이 상과 어린이 개념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Perry Nodleman., The Pleasure's of Children's Literature. 김서정 역,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1』, 시공주니어, 2001, 143쪽 ; 손향숙, 「영국 아동문학과 어린이 개념의 구성」,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박사논문, 2004, 4쪽.

이들'이란 한 시대의 화두와 함께 어린이 문학의 한국적 토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현실주의 어린이 문학 정신이 여기에서도 그 내면을 내밀하게 관류하고 있다.

실제로 당대에 와서 '일하는 아이들'과 '유희정신'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들[22]이 제창되었지만, 현시점에서 바라본 어린이 문학의 지형은 그 거품에 비해 속살이 옹골차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분히 상업주의의 기획에 의해 어린이를 일개 소비자로 간주하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 입도선매 형태로 어린이 문학 작품을 찍어내는 것이 지금의 실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기 어린이 문학의 국면은 이러한 상업주의와 대중추수주의에 대항하여 현실주의에 붙박은 새로운 시대정신의 모색을 요청해오고 있다. 물론 어린이 문학 평론서의 연이은 출간과 어린이 문학 평론가의 계속되는 등단과 배출 그리고 어린이 문학을 연구하려는 이론가와 연구자들이 속속 가세하고 있다고는 하나 어린이 문학의 역사와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단순히 실제 비평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어린이 물에 대한 비평적 손길만이 이어질 뿐 어린이 문학 비평의 역사적 정리 작업이나 일차적인 자료의 선별과 서지적인 작업 등의 원본적인 의무들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방정환이나 이원수 그리고 이오덕과 같은 시대적 거장의 어린이 문학 사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 문학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예각적인 비평적 접근과 좋은 어린이 도서의 선별 작업에 덧붙여 어린이 문학의 역사적 흐름에 있어서 비평과 이론 그리고 사상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기초 조사와 자료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실제 초등학교 문학 교실에서 문학 교사와 초등 학습독자들이 어린이 문학작품을 함께 나누기 위한 어린이 문학 교육적인 시각의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린이 문학

22) 김이구, 「아동문학을 보는 시각—'일하는 아이들'이후의 길」, 『아침햇살』, 1998 가을호, 74~103쪽 ; 원종찬, 「'일하는 아이들'과 '유희정신'을 넘어서」, 『동화와 어린이』, 창비, 2004, 13~45쪽.

연구의 정착과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어린이 문학 교육에 대한 연구 담론이 촉발되어 공론 영역을 부단히 창출해 내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향후 과제

지금까지 근대 어린이 문학의 형성과 기원이란 틀을 통해 어린이와 어린이 문학에 대한 역사적 질문을 시도해 보았다. 어린이 문학과 어린이 문학 교육을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철학적 토대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린이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에 천착해 본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문학의 기원을 최남선과 방정환이라는 대립항을 통해 탐색해보려는 최근 일련의 시도들 그리고 일하는 아이들 이후 일하지 않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금 여기'의 어린이 문학과 향후 방향을 고민하는 연구자들의 인식도 결국 '오늘의 어린이'를 향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문제는 근대 어린이의 발견이라는 역사적 지층을 넘어서 부단히 우리 시대에 발 딛고 서 있는 현실 속 어린이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지금의 어린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린이 문학 연구와 어린이 문학 교육 연구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쏟아져 나오는 어린이 문학 텍스트들에 대한 예각적인 실제 비평과 함께 어린이 문학사와 비평사 그리고 사상사를 추적하기 위한 기초 자료 조사와 정리 작업 그리고 역사적 의미에 대한 천착이 이어져서 어린이 문학과 교육을 탄탄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8. 2. 11. 투고되었으며, 2008. 3. 5. 심사가 시작되어 2008. 3.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1. 자료

<소년>, <신여성>, <현대문학>, <개벽>, <新天地>, <아동문화>

방운용 편(1940), 『小波 全集』, 博文書館.

2. 참고논저

권복연(1999), 「근대 아동문학 형성 과정 연구－1910~1920년대초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김상욱(2002), 「아이들의 눈, 어른의 상상력」, 『숲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묻다』, 창작과비평사, 27~41쪽.

김상욱(2006), 「어린이문학의 장르론적 특성」, 『어린이문학의 재발견』, 창비, 83~99쪽.

김이구(1998), 「아동문학을 보는 시각－'일하는 아이들'이후의 길」, 『아침햇살』, 가을호, 74~103쪽.

김혜경(1997), 「일제하 자녀양육과 어린이기의 형성 : 1920~30년대 가족담론을 중심으로」,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222~276쪽.

김화선(2002),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박숙경(1999), 「한국 근대 창작동화 형성과정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손향숙(2004), 「영국 아동문학과 어린이 개념의 구성」, 서울대 박사논문.

심명숙(2002), 「한국 근대 아동문학론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염희경(2006), 「한국 근대아동문단 형성의 '제도'」, 『동화와번역』 11집,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197~230쪽.

염희경(2007), 「소파 방정환 연구」, 인하대 박사논문.

원종찬(2001), 「한국 현대아동문학사의 쟁점」,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비평사, 140~152쪽.

원종찬(2004), 「'일하는 아이들'과 '유희정신'을 넘어서」, 『동화와 어린이』, 창비, 13~45쪽.

이오덕(1984), 「아동도서·아동문학·아동교육」, 『어린이를 지키는 문학』, 백산서당, 145~154쪽.

이재철(1978),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정인섭(1975) ,『색동회 어린이 運動史』, 학원사.

조은숙(2005),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조은숙(2007), 「'아동의 발견'이라는 화두와 아동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형」,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

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9~24쪽.
조형근(1997), 「'어린이기'의 탄생과 근대적 가족 모델의 탄생」,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새길, 133~164쪽.
천정환(2003), 『근대의 책 읽기-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최배은(2004), 「한국 근대 청소년소설의 형성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최기숙(2001), 『어린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 책세상.
최기숙(2006), 『어린이, 넌 누구니?』, 보림.
홍성태(2000), 「지식사회와 어린이－'똑똑이' 이데올로기와 학력주의의 내면화」, 『문화과학』 21호, 문화과학사, 53~70쪽.
John Rowe Townsend(1996), Written for Children. 강무홍 역, 『어린이책의 역사1』, 시공주니어.
Perry Nodleman.(2001), The Pleasure's of Children's Literature. 김서정 역,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1』, 시공주니어.
Philippe Ariès.(2003), L'enfant et la vie familiale sous l'ancien régime. 문지영 역, 『아동의 탄생』, 새물결.
梅根悟, 김정환・심성보 역(1990), 『세계교육사』, 풀빛.
柄谷行人, 박유하 역(2005), 「아동의 발견」,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長尾十三二 外, 송일지 역(1995), 『新教育運動史』, 한마당.
河原和枝(2007), The Making of Modern View of Children in Japan. 양미화 역, 『어린이관의 근대－<빨간 새>와 동심의 이상』, 소명출판.
横須賀 薫(2004), 童心主義と兒童文學. 박숙경 역, 「동심주의와 아동문학」, 『창비어린이』 5호, 182~225쪽.

<초록>

어린이와 어린이 문학에 대한 역사적 질문
-근대 어린이 문학의 형성과 현재적 과제-

임성규

본 연구는 어린이 문학 연구와 어린이 문학 교육 연구의 기초적 바탕이자 선결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와 어린이 문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려는 시도이다. 어린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서 어린이 문학을 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둘은 서로 긴밀한 연관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어린이 문학 모두 완연한 근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방법적 시선에 의해 발견된 아동에 대한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탐구가 요청된다.

최근 어린이 문학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어린이 문학의 형성과 기원에 대한 의미 모색이 활발해 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대한 격렬한 논쟁과 건강한 토론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 단계 어린이 문학 연구의 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최남선과 방정환의 어린이 문학 운동에 대한 검토가 단순히 대립적 선택의 문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린이 문학의 철학적 토대와 연관된 의미 있는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곧, 소년과 어린이 그리고 동심의 올바른 의미 모색이 그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들은 현재적 과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오덕의 일하는 아이들 이후 지금의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 문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곧, 단순히 현실주의라는 거대 담론의 포기로 귀결되어서는 곤란하며, 현실주의의 건강한 토대 위에서 다양한 분출을 모색하는 다양성과 다원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적 정리 작업도 이루어져서 보다 온전한 아동문학과 교육의 연구 지형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핵심어】 어린이와 어린이기, 어린이 문학의 연구의 지형, 역사적 의미, 근대 어린이 문학의 형성, 현재적 과제

<Abstract>

Historical Question about Children and Children's Literature

—Formation of Modern Children's Literature and the Present Task—

Lim, Sung-kyu

This study aimed quest of historical meaning children and children's literature that be conditioned children's literature study and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study. The question "Who is children?" is essential theme in children's literature debate. Specially, because they are product of modern, we have to quest historically and philosophically them.

Recently children's literature study is concentrating on the formation and origin of children's literature. But modern children's literature movement is not oppositional selection problem but philosophical foundation and root.

This historical meanings are linked to present times task with 'laboring children'. That is question of "What is pursuing value for now and here children in the children's literature?" It is not abandon of realism but diverse spurt based on reality. And, We have to study basic material and literary history and it can more full study map in children's literature.

【Key words】 child and childhood, map of children's literature study, historical meaning, modern children's literature formation, present times task